

경제현안 분석

I. 재정기조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
〈연구위원 김성태〉

II.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연구위원 김태봉〉
〈연구위원 이한규〉

III.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
〈연구위원 황수경〉
〈연구위원 신석하〉
〈연구위원 김인경〉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

연구위원 황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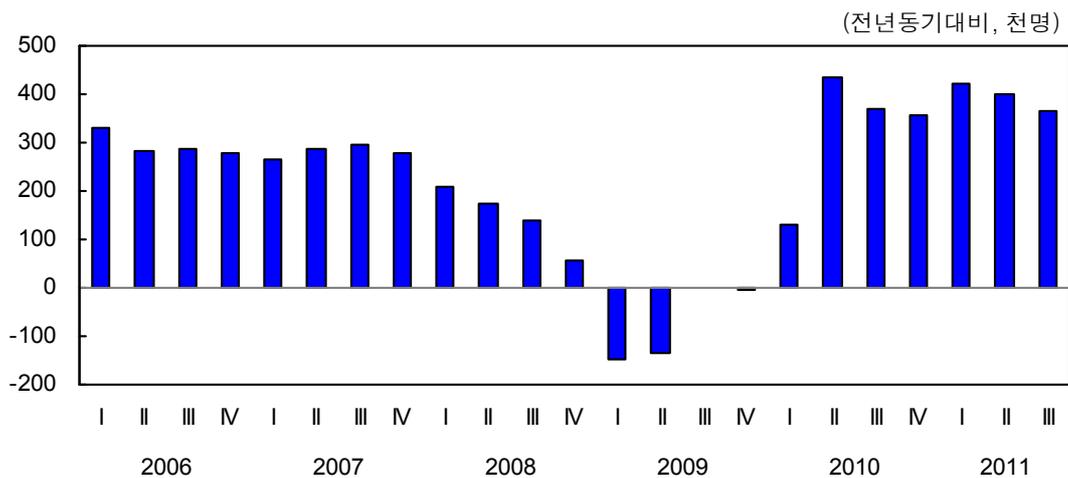
연구위원 신석하

부연구위원 김인경

1. 문제의 제기

- 2010년 2/4분기 이후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금융위기 동안의 고용 위축(2009년 7.2만명 감소)에 대한 반등효과로 인식되었으나, 2011년에도 40만명 내외의 높은 고용증가세가 유지됨.
- 이러한 증가세는 금융위기 이전(2007년 1/4분기~2008년 2/4분기에 평균 25만명 증가)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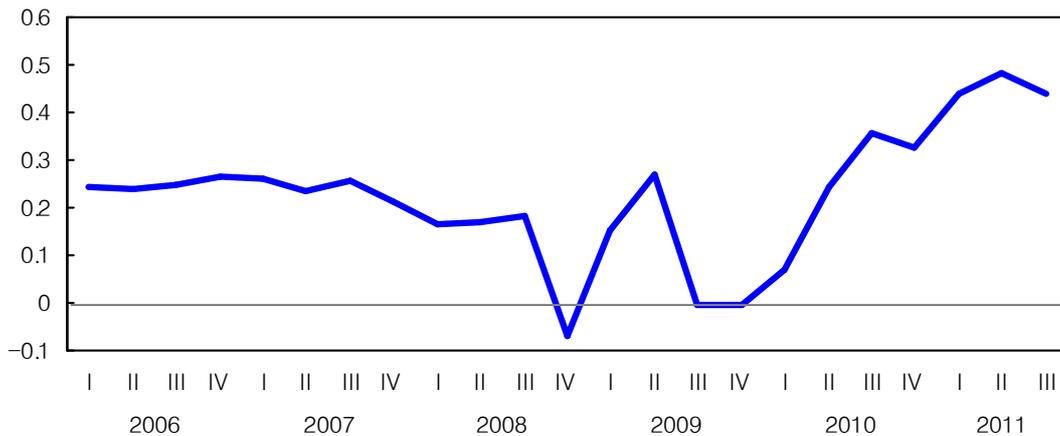


- 본고는 최근 고용 증가의 특징을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고용 증가를 유발한 요인을 식별하고, 우리 경제 및 고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경제 전체의 성장률, 경제활동참가, 임금 등 고용 관련 요인을 검토
- 아울러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의 차이를 살펴봄.

2. 최근 고용 증가의 특징

- 최근 고용증가세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
-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실질 GDP 증가율)가 2010년 2/4분기~2011년 2/4분기 동안 0.48로서 과거(2006~07년 0.25 내외)에 비해 높은 수준
 - 고용이 경기에 다소 후행하는 것을 감안하여도, 최근 고용증가세는 생산증가세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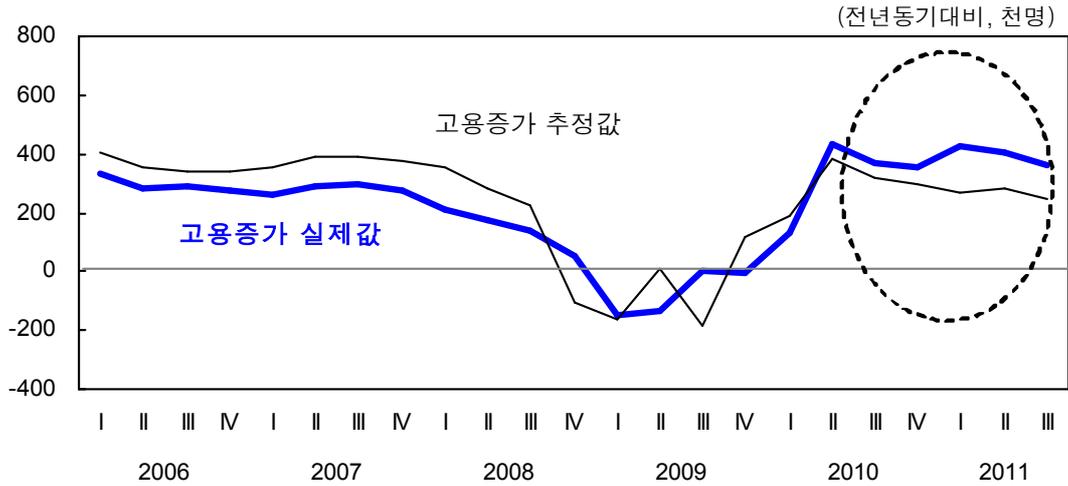
고용탄성치



- 수요요인을 고려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도 최근의 고용증가세를 수요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움을 나타냄.
 - 취업자 증가를 경제성장률, 소비비중 등 수요요인만으로 추정하는 경우, 추정치가 실제 고용증가분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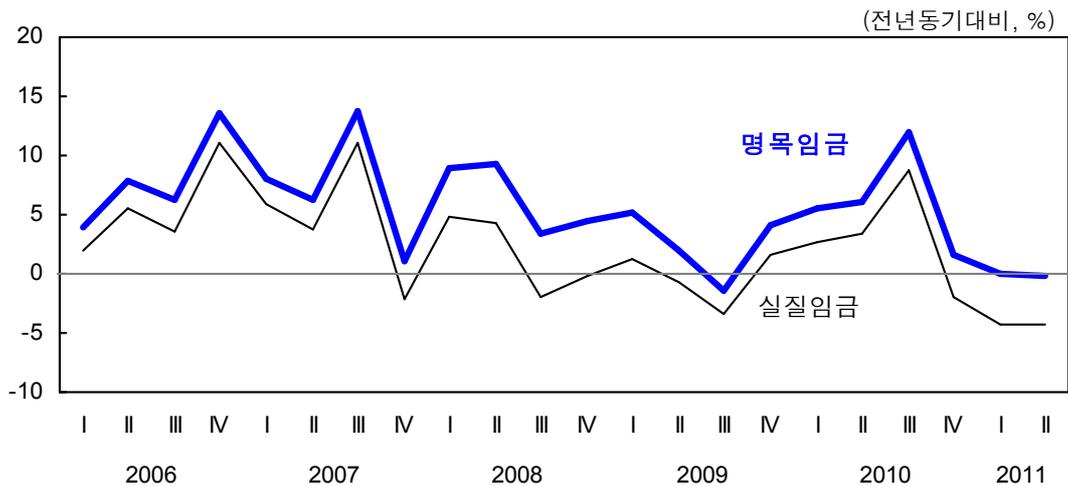
- 2010년 2/4분기~4/4분기에는 추정치가 실제 고용증가분을 5만명 내외 하회하며, 2011년 이후에는 실제 고용증가분과의 차이가 평균 13만명으로 확대

고용증가 실제치 및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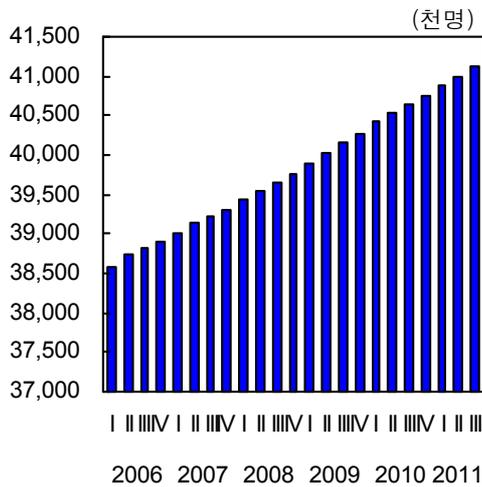
- 또한 최근의 낮은 임금상승률도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명목임금상승률은 2010년 3/4분기(12.0%) 이후 하락하여 2011년 2/4분기에는 -0.2%를 기록

임금상승률(상용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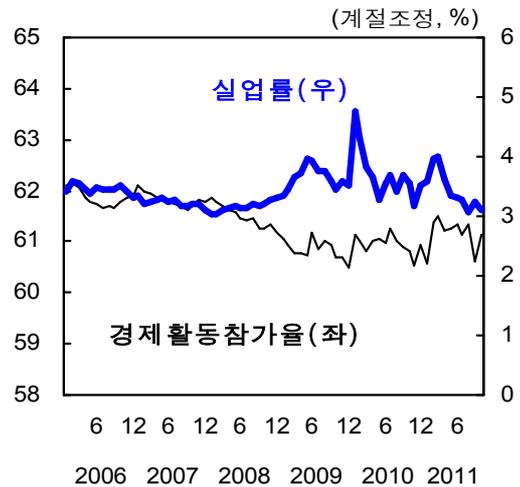


- 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도 분해 결과도 최근 취업자 증가세 확대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
-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규모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모습

생산가능인구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 최근 취업자 증가규모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14만명 정도 확대(25만명 → 39만명)되었는데, 이 중에서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의 변화가 기여한 정도는 각각 3.6만명, 9.2만명, 1.2만명으로 추산됨.

고용증가 분해 결과

(전년동기대비, 천명)

기 간	취업자 증감	생산가능인구 기여분	경제활동참가율 기여분	실업률 변화 기여분
2007.1/4~2008 2/4 (A)	251.6	245.4	-42.4	48.6
2008.3/4~2010 1/4 (B)	5.9	282.8	-178.5	-98.3
2010.2/4~2011 3/4 (C)	391.4	281.8	49.2	60.3
(C) - (A)	139.8	36.4	91.6	11.7

자료: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산.

3. 연령 및 성별 고용의 특징

- 15~29세 연령층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
 - 최근 15~29세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0만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
 -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세가 둔화되며(-1.07%p → -0.29%p),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8만명 → -5만명)

연령별 고용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천명, %p)

분 류	기 간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취업자	2007.1/4 ~ 2008.2/4 (A)	-77.4	171.3	157.8
	2008.3/4 ~ 2010.1/4 (B)	-114.3	13.0	107.3
	2010.2/4 ~ 2011.3/4 (C)	-47.1	171.5	266.9
	(C)-(A)	30.3	0.2	109.1
생산가능인구	2007.1/4 ~ 2008.2/4 (A)	-0.6	164.0	247.7
	2008.3/4 ~ 2010.1/4 (B)	-44.6	172.3	354.5
	2010.2/4 ~ 2011.3/4 (C)	-96.6	83.2	490.1
	(C)-(A)	-96.0	-80.8	242.4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2007.1/4 ~ 2008.2/4 (A)	-1.07	0.17	0.46
	2008.3/4 ~ 2010.1/4 (B)	-0.76	-0.34	-0.22
	2010.2/4 ~ 2011.3/4 (C)	-0.29	0.41	0.38
	(C)-(A)	0.78	0.24	-0.08
실업률 증감	2007.1/4 ~ 2008.2/4 (A)	-0.44	-0.10	-0.14
	2008.3/4 ~ 2010.1/4 (B)	0.62	0.32	0.65
	2010.2/4 ~ 2011.3/4 (C)	-0.43	-0.18	-0.16
	(C)-(A)	0.01	-0.08	-0.02

자료: 통계청.

- 반면, 최근 5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고령화에 따라 이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며,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16만명 → 27만명), 이는 고령화에 따라 55세 이상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확대된 데 기인(25만명 → 49만명)
-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년동기대비 0.46%p씩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0.38%p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
- 한편,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 각 연령층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감폭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각각 0.84%p, 0.33%p, -0.03%p를 기록하여 남성의 증감폭(0.71%p, 0.18%p, -0.24%p)을 상회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전년동기대비, %p)

기 간	전 체	남			여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2007.1/4 ~ 2008.2/4 (A)	-0.11	-1.20	-0.06	0.68	-0.94	0.39	0.28
2008.3/4 ~ 2010.1/4 (B)	-0.47	-0.85	-0.30	-0.16	-0.66	-0.43	-0.30
2010.2/4 ~ 2011.3/4 (C)	0.13	-0.49	0.12	0.44	-0.10	0.72	0.24
(C) - (A)	0.24	0.71	0.18	-0.24	0.84	0.33	-0.03

자료: 통계청.

- 인구집단의 비중을 감안하여도,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된 데에는 15~29세 연령층 및 여성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성·연령 인구집단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상승분(0.24%p)에 대한 기여도를 추산한 결과, 여성 15~29세(0.11%p), 남성 15~29세(0.09%p), 여성 30~54세(0.08%p)의 기여가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 차이(0.24%p)는 인구구성 변화의 기여분(-0.07%p)과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기여분(0.29%p)으로 분해됨.
- 고령화는 핵심근로계층(30~54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55세 이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15~29세 연령층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된 것은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추측됨.

-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구주 외 취업자 증가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
 -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가구주 취업자에서 발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구주 외 취업자 증가폭이 가구주 취업자 증가폭을 크게 상회
- 특히, 남성 15~29세 및 여성 30~54세 계층에서 가구주 외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

가구주 및 가구주 외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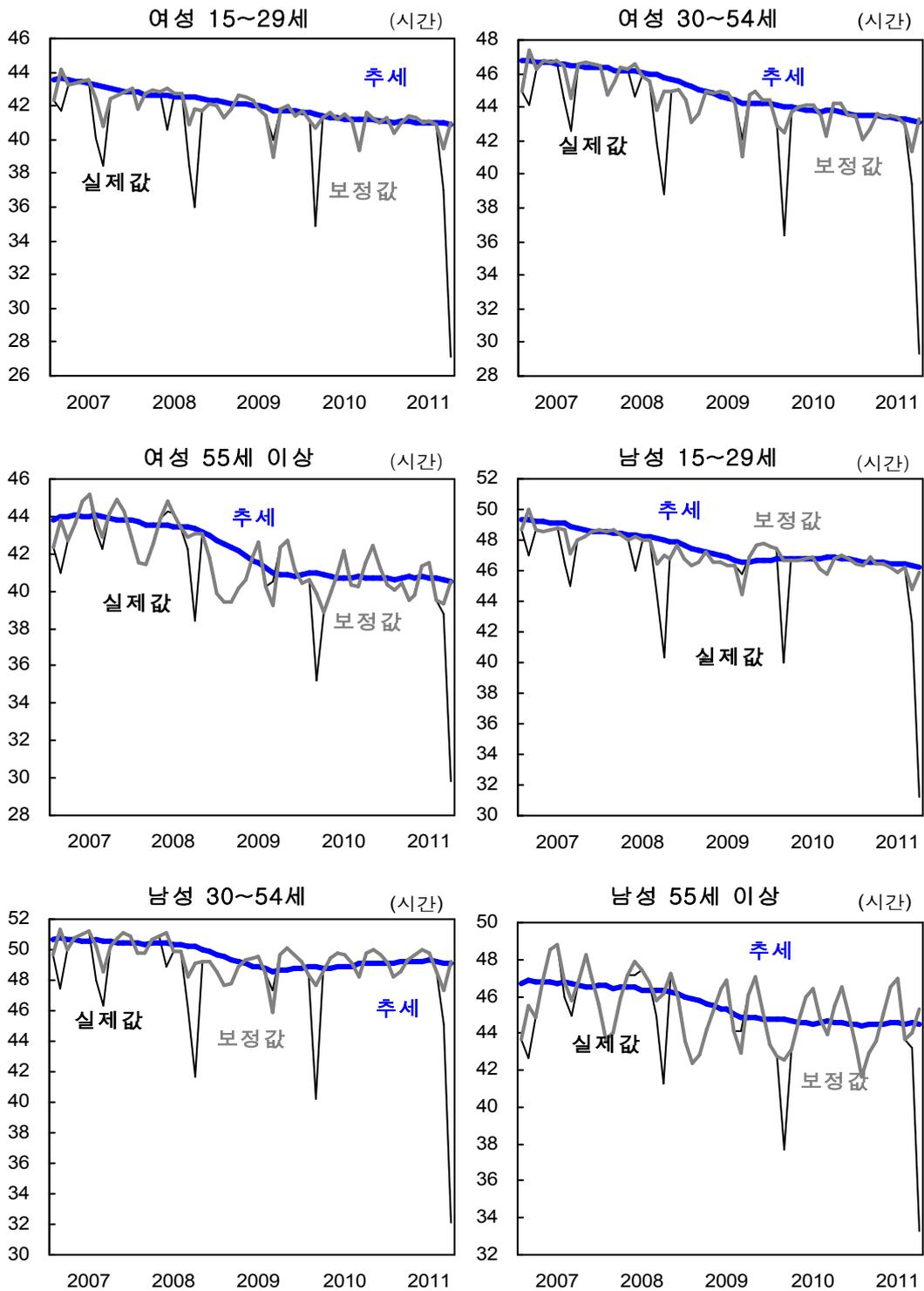
구분	기간	전체	남			여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가구주	2007.1/4 ~ 2008.2/4 (A)	220.3	10.0	47.7	105.6	-28.5	53.9	31.6
	2008.3/4 ~ 2010.1/4 (B)	-192.1	-68.8	-24.2	67.5	-39.3	-98.0	-29.3
	2010.2/4 ~ 2011.3/4 (C)	144.0	-52.7	3.2	171.3	-29.6	14.3	37.5
	(C)-(A)	-76.2	-62.7	-44.6	65.7	-1.0	-39.5	5.9
가구주 외	2007.1/4 ~ 2008.2/4 (A)	31.5	-49.9	43.2	-6.7	-9.1	26.5	27.3
	2008.3/4 ~ 2010.1/4 (B)	198.0	18.3	53.5	7.4	-24.6	81.7	61.7
	2010.2/4 ~ 2011.3/4 (C)	247.4	27.0	74.9	-6.7	8.2	79.1	64.9
	(C)-(A)	215.9	76.9	31.7	-0.1	17.2	52.6	37.6

자료: 통계청.

■ 최근 증가한 여성 취업자의 상당 부분이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

- 근로시간에서 휴일 및 명절효과 등을 보정한 후 추세를 살펴보면, 남성의 근로시간은 유지되는 반면 여성의 근로시간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여성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특히, 여성 30~54세 및 15~29세 계층의 근로시간이 다른 계층에 비해 빠르게 단축

성별 · 연령별 근로시간



- 한편, 추가 근로를 원하는 여성 취업자가 최근 감소하고 있어, 최근 증가한 여성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수가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여성 취업자 중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거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는 감소

추가 취업 및 전직 희망자

(전년동기대비, 천명)

기간	전체	남			여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현재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							
2007 1/4 ~ 2008 2/4 (A)	-5.8	-2.1	-9.0	3.3	0.9	-0.4	1.4
2008 3/4 ~ 2010 1/4 (B)	73.2	2.4	19.2	14.3	5.1	20.4	11.7
2010 2/4 ~ 2011 3/4 (C)	-73.9	-2.2	-29.1	-7.6	-5.0	-16.9	-13.1
(C)-(A)	-68.2	-0.2	-20.1	-11.0	-5.9	-16.5	-14.5
현재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							
2007 1/4 ~ 2008 2/4 (A)	12.7	1.3	2.6	2.8	2.1	1.6	2.3
2008 3/4 ~ 2010 1/4 (B)	2.3	1.4	-1.0	-0.8	-1.4	2.4	1.6
2010 2/4 ~ 2011 3/4 (C)	-0.1	-1.6	-1.0	1.9	2.9	-1.4	-0.9
(C)-(A)	-12.8	-2.9	-3.6	-0.9	0.8	-3.0	-3.2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							
2007 1/4 ~ 2008 2/4 (A)	1.7	0.1	-4.2	1.0	1.2	1.9	1.7
2008 3/4 ~ 2010 1/4 (B)	15.6	1.1	7.9	-0.3	3.0	3.3	0.7
2010 2/4 ~ 2011 3/4 (C)	-29.6	-2.6	-12.8	-0.1	-4.1	-9.8	-0.3
(C)-(A)	-31.4	-2.7	-8.6	-1.1	-5.3	-11.7	-2.0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							
2007 1/4 ~ 2008 2/4 (A)	178.4	18.6	47.9	15.0	36.2	55.1	5.6
2008 3/4 ~ 2010 1/4 (B)	203.5	4.5	37.0	48.5	-5.9	62.2	57.3
2010 2/4 ~ 2011 3/4 (C)	762.2	65.5	236.2	84.3	67.1	217.6	91.5
(C)-(A)	583.8	46.9	188.3	69.3	30.9	162.6	85.8

자료: 통계청.

- 종사상 지위별로는 여성 30~54세 계층에서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
 - 거의 모든 성·연령 계층에서 상용근로자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여성 30~54세 계층에서 상용근로자가 크게 증가
 - 한편, 남성 55세 이상의 경우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증가세도 크게 확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천명)

구 분	기 간	전 체	남			여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007.1/4 ~ 2008.2/4 (A)	424.2	46.2	154.3	34.3	13.5	160.3	15.6
	2008.3/4 ~ 2010.1/4 (B)	406.7	-22.9	250.6	49.8	-31.0	133.9	26.4
	2010.2/4 ~ 2011.3/4 (C)	655.7	1.5	195.0	96.1	37.6	272.4	53.2
	(C)-(A)	231.5	-44.7	40.7	61.8	24.0	112.1	37.6
	임시근로자							
	2007.1/4 ~ 2008.2/4 (A)	-12.7	-68.3	15.2	28.6	-57.1	18.9	50.0
	2008.3/4 ~ 2010.1/4 (B)	-18.0	-10.9	-57.0	16.9	-4.4	-14.1	51.6
	2010.2/4 ~ 2011.3/4 (C)	-66.6	-13.8	16.9	-13.7	-36.1	-45.8	25.9
	(C)-(A)	-53.8	54.5	1.7	-42.2	21.0	-64.7	-24.1
	일용근로자							
	2007.1/4 ~ 2008.2/4 (A)	-31.7	-5.0	-10.1	15.9	8.8	-31.4	-10.0
	2008.3/4 ~ 2010.1/4 (B)	-145.1	-20.5	-45.8	-16.9	-13.1	-42.6	-6.3
2010.2/4 ~ 2011.3/4 (C)	-84.5	-11.6	-51.4	31.6	-8.1	-50.6	5.6	
(C)-(A)	-52.7	-6.6	-41.3	15.7	-16.9	-19.2	15.6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2007.1/4 ~ 2008.2/4 (A)	-81.1	-9.5	-76.0	19.7	8.4	-27.9	4.3
	2008.3/4 ~ 2010.1/4 (B)	-187.8	1.0	-119.3	22.0	-10.9	-47.3	-33.3
	2010.2/4 ~ 2011.3/4 (C)	-81.3	-1.0	-80.9	52.9	-15.2	-50.2	13.1
	(C)-(A)	-0.2	8.5	-4.9	33.2	-23.6	-22.3	8.7
	무급가족종사자							
	2007.1/4 ~ 2008.2/4 (A)	-47.0	-3.3	7.6	0.5	-11.2	-39.5	-1.1
	2008.3/4 ~ 2010.1/4 (B)	-49.9	2.8	0.9	3.1	-4.4	-46.1	-6.2
2010.2/4 ~ 2011.3/4 (C)	-32.0	-0.8	-1.6	-2.4	0.5	-32.3	4.6	
(C)-(A)	15.0	2.4	-9.1	-2.9	11.6	7.2	5.7	

자료: 통계청.

- 한편, 산업별로는 15~29세 및 30~54세 연령층이 주로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데 비해, 55세 이상 연령층은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됨.
- 금융위기 이전에 감소세를 지속하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0년에 상당 폭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1년 이후 과거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
- 15~29세 및 30~54세 연령층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 되거나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여성 55세 연령층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남성 55세 연령층은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됨.

산업별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천명)

구 분	기 간	전 체	남			여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제조업	2007.1/4 ~ 2008.2/4 (A)	-36.8	-26.7	-4.5	8.0	-30.6	8.3	8.5
	2008.3/4 ~ 2010.1/4 (B)	-85.6	-28.1	11.2	16.2	-19.4	-59.5	-5.9
	2010.2/4 ~ 2011.3/4 (C)	171.9	11.4	61.7	19.4	7.8	48.2	23.4
	(C)-(A)	208.7	38.1	66.2	11.4	38.4	39.9	14.9
건설업	2007.1/4 ~ 2008.2/4 (A)	-0.8	-20.2	-13.6	25.1	0.7	7.6	-0.4
	2008.3/4 ~ 2010.1/4 (B)	-72.5	-3.3	-52.0	-9.6	-8.6	2.7	-1.7
	2010.2/4 ~ 2011.3/4 (C)	18.8	-18.7	-10.6	53.6	-0.2	-6.7	1.4
	(C)-(A)	19.6	1.5	3.0	28.5	-0.9	-14.3	1.8
서비스업	2007.1/4 ~ 2008.2/4 (A)	334.1	9.5	104.7	82.2	-5.0	76.7	65.7
	2008.3/4 ~ 2010.1/4 (B)	207.5	-21.4	60.7	73.8	-36.2	61.7	68.1
	2010.2/4 ~ 2011.3/4 (C)	252.5	-12.5	45.0	100.9	-27.9	61.9	85.1
	(C)-(A)	-81.6	-22.1	-59.7	18.7	-22.9	-14.8	19.4

자료: 통계청.

4.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는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개선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고용증가세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10만명 이상 높은 수준이며, 이는 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데 기인
 - 경제활동참가율의 개선은 주로 1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
 - － 반면, 최근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고령화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는 최근 소폭 둔화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에 비해 빠르게 개선
-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 자발적 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졸 채용확대 장려, 일자리 나누기 등 정책효과가 결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됨.
 - － 최근 대학진학률이 하락하는 현상(2008년 83.8% → 2010년 79.0%)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
 - 여성의 경우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여성 30~54세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됨.
- 향후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개선 추세가 지속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향후 고령화에 따른 근로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한편, 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인식할 필요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단시간 근로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방식을 개선함과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추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고려할 필요
-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졸 채용확대 장려, 일자리 나누기, 여성의 출산 및 보육 부담 경감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